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6일(목) 총 6매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 당 자	• 유산정책팀장 김진석 ☎440-4471 • 담당자 한규복 ☎440-44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찾는다

- 올해 상반기 중 (구)인천우체국 소유권 취득 예정,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
-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해 시민 정서 반영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 유형문화재인 (구)인천우체국의 소유권을 올해 상반기 중 취득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인천우체국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12월 10일 건립돼 올해 건립 100년을 맞는 근대식 건물로 우정사업본부가 소유하고 있다. 중구 제일량로(항동6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1,850.7㎡, 건물연면적은 2,152㎡의 지상 2층,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우체국의 옛 청사로 사용됐다가 2019년까지 인천중동우체국 건물로 사용됐으며, 1982년 3월 2일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2019년 2월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구)인천우체국 매입 요청을 받은 후 재산교환 결정 및 재산교환부지 확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을 거쳐 지난해 10월 교환부지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상반기 중 소유권 취득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4월 중 토론회를 개최해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 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은 자칫 보호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과 문화재에 대한 거리감이 들게 하고, 반면 활용만을 내세우게 되면 문화재 훼손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는 시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 정서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도 포함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2025년 10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구)인천우체국은 역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1-8부두와 중구 원도심을 연결

하는 지리적인 연결점으로서 상징성도 크다” 며,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 < 참고 > 1.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추진계획  
2. (구)인천우체국 전경 사진

## 참고 1

##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추진계획

◆ (구)인천우체국이 2023년 상반기 중 취득예정으로 취득에 따른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추진

### □ 시설개요

- (시 설 명) (구)인천우체국 (시 유형문화재 제8호 - 1982. 3. 2.)
- (소 유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 (위 치) 중구 향동6가 1(제물량로 183)
- (면 적) 토지 1,850.7㎡(560평), 건물 연면적 2,152.4㎡(652평) (2개동 / 지상2층)
- (준 공 일) 1923. 12. 10. (2004. 12. 13. 대수선)

### □ 추진 방향

- (시민 및 전문가와 소통) 활용방안 수립 시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의견 정취 등으로 전문성 제고
- (시민 정서를 반영한 활용 방안 마련) 2019년까지 중구 향동 부근에서 시민들이 우체국으로 이용했던 만큼 주변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활용 방안 마련
- (보수·보강 공사) 안전등급 ‘C’ 등급에 따라 2020년 중구청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참고하여 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 (원형 보존과 활용간 조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1923년 건축기점을 기준으로 원형복원을 추진하되 복원과 활용이 충돌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추진
-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도모) 경제성 사업 등을 통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모

## □ 그동안 진행사항

- 2019. 2월 : (구)인천우체국 매입요청 (경인지방우정청→인천시)
- 2021. 9월 : 재산교환 결정 및 재산교환부지 확정 (CJ대한통운부지)
- 2021.10월 :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2.10월 : 교환 부지 취득 (CJ대한통운 부지)
- 2023. 3월 :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교환 취득)
- 2023. 3월 :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기본 계획 수립
- ※ 2023년 상반기 중 (구)인천우체국 교환 취득 예정

## □ 향후 추진계획

-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토론회 개최 : 2023. 4월
-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2023. 6월 ~ 11월
-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수립 : 2023.12월
-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건축기획용역) : 2024. 1월 ~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 6월 ~ 12월
-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 (구)인천우체국 공사 실시 : 2025. 1월 ~ 9월
- 시민 개방 행사 및 운영 : 2025.10월

## 참고 2

## [구]인천우체국 전경

